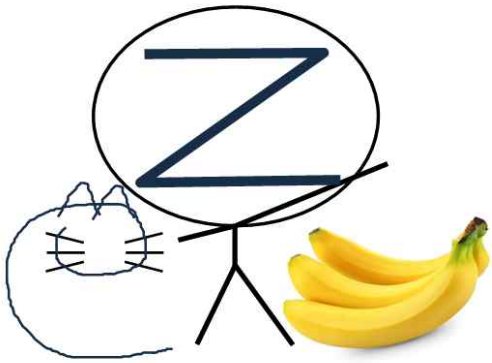
오르비클래스(https://clas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윤 1

-개념의 모든 것-

n회독을 위한

I. 자료 모음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윤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Ⅰ. 자료 모음
Ⅱ. 문제 모음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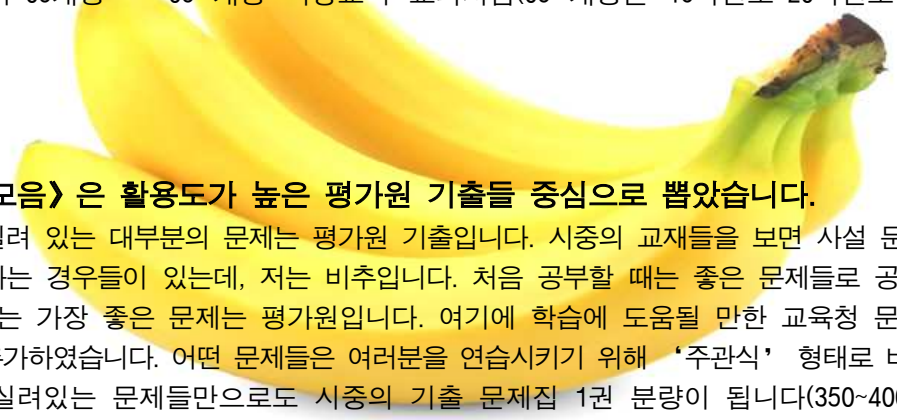
Ⅰ.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모음》입니다.

n회독 하십시요!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윤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함께 다양한 형식의 연습 문제들을 실어서 여러분의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해당하는 교과서임)



Ⅱ. 《문제 모음》은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350~400문항).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 그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Ⅲ.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가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1-1: 윤리학의 구분 --- 5
1-2: 동양 윤리+자연관 --- 10
1-3: 서양 윤리 --- 23
1-4: 도덕적 추론 --- 45
1-5: 토론, 밀의 자유론 --- 48

2-1: 죽음관 --- 52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57
2-3: 성•사랑 --- 61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65

3-1: 직업 사상가 --- 69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75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78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84
3-5: 분배 정의 --- 87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104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 106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119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134

4-1: 과학기술과 윤리 --- 144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148
4-3: 환경 윤리(서양의 자연관) --- 151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175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80
5-2: 의식주 윤리 --- 187
5-3: 다문화 윤리 --- 192
5-4: 종교와 윤리 --- 195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202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207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212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222

zola amazing 답 --- 232

1단원: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1-1: 윤리학의 구분

1. [교과서 읽기] 미래엔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분석이나 기술에 치중하는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어떤 도덕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이 있다.

한편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제공하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실천 윤리학은 임신 중절, 안락사, 생명 복제, 사형 제도, 기후 정의 문제 등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며,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이 때문에 실천 윤리학은 '문제 중심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이라고 불릴 만큼 실천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안내한다.

[메타 윤리학의 주요 물음들]

- **'좋은(good)'과 '옳은(right)'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도덕 판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미래엔

2. 현대 윤리학의 구분

(가) 규범 윤리학: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의 원리나 목적 및 법칙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따라서 규범 윤리학의 관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의 도덕 생활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도덕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나) 메타 윤리학: 규범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판단의 준거에 대해 논리적, 의미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를 언어 분석적 방법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덕 언어와 도덕적 개념들의 논리적·의미론적 분석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가치중립적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은 도덕 생활의 원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도덕적 판단 및 신념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응용 윤리학: 윤리학을 바탕으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시도하는 학문이다. 응용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컨대 브로디(Brody, B., 미국의 생명 윤리학자이자 응용 윤리학자)는 ①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도덕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②우리에게 친숙한 일부 제도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③과거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수정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용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기여한다.

3. 윤리학의 구분 및 전개 과정(교학사-09개정, 일부 수정)

전통적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었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자들은 인생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목적'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도덕규범(道德規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앞에서와 같은 실천적 물음에 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리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윤리학자들은, 전통 윤리학이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윤리학적 회의론■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앞에서 제기된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부터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1930년대에 이르러 도덕적 언어 내지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 철학으로서의 메타 윤리학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규범 윤리학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규범 윤리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조가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메타 윤리학 자체는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조는 더 나아가 규범 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 이론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적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응용 윤리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응용 윤리학은 윤리학의 본질이 '실천'에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 윤리학적 회의론: 인간의 마음과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관점과는 달리, 누구도 어떤 도덕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 지식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4. 메타 윤리학

(1) (ebs)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메타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들에는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와 "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비(非)인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메타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ebs)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인 용어의 의미와 분석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분석 윤리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론적이고 논증의 논리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 한다. '의미론적'이란 단어와 진술의 의미를 말하고, '논리적'이란 결론이 근거로부터 도출된다는 뜻이며, '인식론적'이란 지식을 의미한다.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 Zola Guide (1) 인지주의(사실-참·거짓-을 인지할 수 있음)와 비인지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 '밖'임. 인지주의이든 비인지주의이든 메타 윤리학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함. 그렇다면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어떤 면이 메타 윤리학적 성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문제로 만들 때 출제자는 충분히 교육과정(교과서)을 검토하면서 인지주의·비인지주의를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제시문과 선지를 각색하기 때문임. 관련 기출 [17-6-1], [16-9-1]

(2) 참고로 비인지주의는 도덕적 발화는 사실 진술이 아니라 정의적(느낌이나 정서)이거나 규정적(명령, 행위를 안내하는 규정)이라고 봄.(참고: 루이스 포이만 외, "윤리학-옳고 그름의 발견")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님.

5. 기술 윤리학

(1) (ebs)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이 점에서 기술 윤리학은 윤리 이론으로서의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다르다.

(2) (ebs) 기술 윤리학은 개인의 현실적인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그가 가진 도덕 판단 또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도 탐구될 수 있다고 본다. 기술 윤리학은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풍습 또는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6. 규범(normative) 윤리학과 기술(descriptive) 윤리학의 차이(비상-09개정)

'보신탕을 먹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과 같은 설문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 사회 과학의 탐구 활동이다. 이러한 탐구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론 윤리, 응용 윤리)이 할 일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용 윤리적(규범 윤리학적) 탐구에서 기술 윤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은 응용 윤리적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zola 풀어!!!

☞ Zola Guide 기출 문제 풀기 전에 풀 것. 틀리면 필기나 수업 확인하면서 백지 복습할 것. 어정쩡한 개념·지식으로 문제 풀어봤자 실력에 도움 안 됨.

※ ( ) 채우기

1)사람들이 어떤 윤리 의식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 ) 윤리학이다.

2)'보신탕을 먹는 것이 옳은가?' 등과 같은 설문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윤리학은 ( ) 윤리학이다.

3)도덕적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 ) 윤리학이다.

4)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윤리 의식이 옳은지를 탐구하는 것은 ( ) 윤리학이다.

5)'인생에서 선과 악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 ) 윤리학이다.

6)( ) 윤리학은 도덕 원리와 도덕 규칙으로 이루어진 윤리 이론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7)'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진술은 논리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윤리학은 ( ) 윤리학이다.

8)'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논리적으로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리학은 ( ) 윤리학이다.

※ 맞으면 O, 틀리면 X

9)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10)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1)기술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적 탐구에 활용된다.

12)기술 윤리학은 개인과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 판단이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13)[기출 선지 연습] 다음의 각각의 질문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 윤리학을 쓰시오.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14)[교육청]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윤리학은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반해 ㉡□□윤리학은 '옳다와 그르다의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① ㉠은 인식 가능한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은 윤리학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은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④ ㉡은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윤리 이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⑤ ㉠, ㉡은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교육청, 주관식]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각 윤리학의 핵심 탐구 주제로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윤리학의 유형 및 성격>
>
> (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 (나):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 (다): 실제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보기>
ㄱ. (가): 생명 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ㄴ. (나): 인생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ㄷ. (나):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ㄹ. (다):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ㅁ. (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인가, 자선인가?

16)[ebs 응용, 주관식] (가)~(다)의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구분	특징
(가)	선악, 시비(是非)와 같은 윤리적 언어나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도덕 발생의 모태(母胎)는 사회적 관습이므로 도덕 현상을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여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도덕 현상의 특징을 서술한다.
(다)	경제 활동 분야, 환경이나 생명 의료 분야,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각기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한다.

<보기>
ㄱ. (가)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을 주로 한다.
ㄴ. (나)는 도덕적 관행을 경험에 근거한 문화적 사실로 본다.
ㄷ. (다)는 의학, 과학 등 관련 학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ㄹ. (다)는 윤리 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2: 동양 윤리+자연관

☞ Zola Guide 4단원의 환경 윤리에 나오는 동양 부분을 함께 통합하였습니다. 동양 사상은 자연관과 인간관, 윤리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한 번에 알아두는 것이 좋음. 그리고 한자어가 약하다든지 학습에 부담이 된다면 한자어를 먼저 외운 후에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함.

[교과서 읽기, 금성]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

서구 중심의 기계론적 자연관[Zola: 기계론적 자연관은 서양의 환경 윤리[교재 번호 4-3]에서 다룸]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동양의 사유 방식들이 주목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과 사람을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랜 농경 사회의 경험에서 온 것이다. 농사꾼이 자신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 모두를 올 한 해 동안 다 얻어내겠다고 생각했다간 내년부터 당장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이익을 뺏어 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땅에서 수확을 얻으면서도 다시 그 땅에 거름을 주는 방식이 땅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연과의 어울림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자연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자연을 닮으려고 하였다. 이것이 철학에서 추구해 온 자연과 하나 됨, 즉 '천인합일'이었다. 그래서 유가는 자연법칙을 도덕법칙으로 끌어들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와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추구하였고, 도가는 인간 중심의 가치론적 판단을 버리고 내 몸과 자연이 하나로 만나는 존재론적 합일을 추구하였다.

[교과서 읽기, 천재] 동양 윤리의 의의

욕망의 충족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대하여 동양 윤리적 사고는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이러한 태도는 생명 존중이나 자연과의 조화와도 연결되는데, 불교의 불살생(不殺生)과 명상, 도가의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 유교의 검소한 생활 방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도、불 모두가 인간과 자연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동양 윤리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수양과 수행을 통한 개인의 인격 완성을 강조하고, 이상적 인간과 이상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모색한다.

■유기체적 세계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개개의 생명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참고]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동양 윤리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 이해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동양의 자연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자연관이 형성되었다.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동양의 사회관에서도 개인을 중심에 두는 개체적 관점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다.

[교과서 읽기] 유、도、불의 윤리

1. 유교

(1) 미래엔

유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에 있다. 공자는 인(仁)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를 계승한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교 윤리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인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유교 윤리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한다. 유교 윤리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충서(忠恕)'■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이나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수기이안인(修己而安人)'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이렇듯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 윤리의 핵심 규범인 오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교 윤리에서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치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며,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라는 이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 맹자의 사단(四端)

-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수오지심(羞惡之心):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 사양지심(辭讓之心):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
-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 충과 서

- 충(忠):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
- 서(恕):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 오륜(五倫)

- 부자유친(父子有親):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 붕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 대동 사회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서, 노인에게는 그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며, 장정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며, 과부와 고아, 장애인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성년 남자에게는 걸맞은 직분을 주며,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 준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으며,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모략이 있을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도 없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 이러한 세계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 『예기』 -

[참고] 대동 사회에 대한 윤사 교과서 확인. 비상, 윤리와 사상, 36쪽

...이처럼 공자는 법률이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다스릴 때 백성을 바르게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한다."라는 정명(正名)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역할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가 적은 것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며 분배의 형평성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서 지향하였다.

(2) 천재

1) 도덕적 세계관과 인

유교에서는 천지 만물에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속성을 온전히 이어받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다. 누구나 우물에 빠지려는 아기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드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 있다. 이러한 본성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유교는 이러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천지와 더불어 만물이 조화롭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면모를 지닌다.

도덕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교에서는 일상의 평범한 세계를 중시한다. 평범한 세계란 나와 가족, 이웃, 국가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일을 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인(仁)이다. 인이란 진정한 인간다움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어진 행동을 의미한다. 인을 실천하는 덕목에는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오륜 등이 있다.

2) 경, 성과 예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경(敬)과 성(誠)을 강조하는데, 이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신독(愼獨)]은 경에, 진실한 자세로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성에 해당한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경과 성을 통해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극기복례(克己復禮)].

■ 본성: 유교 전통에서는 선한 본성에 반대하는 성악설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선・선악 모두 교육을 통해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3) 수기안인과 이상적 인간상

유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으로 성인(聖人), 군자 등을 제시한다. 군자는 수양을 쌓아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고 실천하며, 일상 속에서 지극한 선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성인과 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가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즉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2. 도가(도교)

(1) 미래엔

도가 윤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노자는 "도(道)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윤리는 이러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 과민을 이상 사회로 본다.

더불어 도가 윤리는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한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여,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를 제물(齊物)이라고 한다. 도가 윤리는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좌망과 심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지인(至人), 진인(眞人), 신인(神人), 천인(天人)이라고 부른다.

■ 좌망과 심재

- 좌망(坐忘):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 심재(心齋):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이다.

(2) 천재

1) 도와 상대적 세계관

도가에서는 도(道)가 우주의 근원이며, 만물의 변화 법칙이라고 본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자연(自然)]'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우주 자체 혹은 사물 자체가 가진 궁극적

속성에 따라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도가에서는 만물의 균형, 조화, 변화가 이러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도가는 이 세계가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큰 것은 그와 대비되는 것에 의해서 크게 여겨지고, 아름다운 것도 그와 대비되는 것에 의해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가치는 도에서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 것뿐이기 때문에 귀천, 선악, 미추, 시비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위자연의 길

인간도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 속의 존재이므로 인간과 자연은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인간에게는 자연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도가에서는 이를 근거로 당시의 위정자나 사상가들을 인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일을 위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심재(心齋)],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잊어야 함[좌망(坐忘)]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양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사회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노닐 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요유(逍遙遊)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

3) 물아일체와 이상적 인간상

도가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는 지인(至人), 진인(眞人), 신인(神人) 등이 있다. 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절대적인 존재인 도를 체득하여 만물과 나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을 실천한다.

3. 불교

(1) 미래엔

불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일정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윤리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계·정·혜의 삼학■ 등과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면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윤리는 연기적 세계관,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을 특징한다.

■ **불성(佛性):**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
■ **열반(涅槃):**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뜻한다.
■ **해탈(解脫):**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이다.

■ **삼학(三學)**

- 계(戒): 몸과 입,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 정(定):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 혜(慧):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2) 천재

1) 연기적 세계관과 자비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양한 원인[인(因)]과 조건[연(緣)],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론을 주장한다. 연기론에 따르면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이를 공(空)이라고 한다. 결국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며 나와 다른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인 자비의 실천이 강조된다.

2) 깨달음과 이상적 인간상

연기성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가 존속한다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삼독, 즉 탐욕[탐(貪)], 분노[진(瞋)], 어리석음[치(癡)]에 빠져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이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수행을 통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불교의 이상적 인간은 부처, 보살 등을 들 수 있다. 부처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며, 보살은 대승 불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으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해탈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고통까지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육바라밀:** 여섯 가지 수행 덕목으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한다.

[천재]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이를 멸하는 길을 밝힌 사성제(四聖諦)를 제시한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이다.

- 고성제(苦聖諦): 현실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다.
- 집성제(集聖諦):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 멸성제(滅聖諦):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 도성제(道聖諦):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지학사] '무주상보시'의 실천

대승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菩薩)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그 중에서 으뜸은 조건 없이 기꺼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보시이다. 특히 참된 베풂은 베풀어 주고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주상보시인데, 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올바른 자각을 할 때 실천할 수 있다.

[참고] 유·도·불 초간단 정리

유교	• 하늘(자연): 만물의 근원이자, 인격적·도덕적 존재 • 인간: 인간은 하늘(자연)을 본받아 인(仁)을 베풀어야 함
도가	• 하늘(자연): 무위(無爲, 무목적)의 존재 • 인간: 자연을 본받아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를 하는 인위(人爲)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살아야 함
불교	• 연기설: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 → 상호 의존성 강조 • 인간: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여 모든 생명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함

1. 유학(유가)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09 개정] 유학에서 자연의 생명력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인 천(天)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인간에게 사랑(仁)을 베푸는 것을 올바른 삶으로 보았다.

-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
- 하늘이 뭇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이 마음에 항상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성을 좋아한다.
-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그 가운데 혼연히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2. 도가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09 개정] 도가에서는 자연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바라본다. 자연이 무위의 원리로 운행하듯 인간 또한 자연에 조작과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물처럼 사는 것이 으뜸 되는 선이다(上善若水(상선약수)).”라는 말에서 자연의 질서를 엿볼 수 있다.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할 것이요,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끊어 주면 슬퍼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긴 것은 끊을 것이 아니요 짧은 것은 이을 것이 아니다. 천성대로 두면 근심은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 옛날의 참된 사람[진인(眞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다. 옛날의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하게 갔다가 의연하게 돌아올 뿐이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이성적 분별 작용[지(知)]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를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 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어렵고,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어버이를 잊기는 쉬워도 어버이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려우며, 천하를 두루 잊기는 쉽지만 천하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릇 효제(孝悌), 인의(仁義), 충신(忠信) 등은 힘써 실천해야만 드러나는 덕이기에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극히 귀한 사람은 벼슬도 마다하고, 지극히 부유한 사람은 재물도 마다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명예도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도(道)는 때에 따라 다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Zola Guide 유가와 도가의 문장 비교**

(1) 독해 point 1. 하늘과 도의 관계

사상	제시문	독해 point
유가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	하늘>>>도[하늘이 도보다 우선]
도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하늘[도가 하늘보다 우선]

(2) 독해 point 2. 하늘[인, 군자]의 역할・의미(**도가는 anti 유가**)

사상	제시문	독해 point
유가	•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 **하늘이** 뭇 사람을 **내시니** •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하늘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권능(권력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임 *하늘[仁]이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있음
도가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유가의 하늘은 어짊[仁]. 도가의 하늘은 유가적 성격은 없음 유가의 하늘[仁, 군자] 존비친소 등을 분별함. 도가는 분별 안 함.

[도가 제시문 보충] 아래 제시문이 '왜' 도가 제시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뭇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땅처럼 낮은 곳에 거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며, 더불어 사귐에 인자하고, 말이 믿음직하고 바르므로 잘 다스려지고, 일에 능력이 있으며, 움직임에 때를 맞춘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 기(氣)를 전일(專一)하게 하고 지극히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 Zola Guide 유가면 어른이 되라고 할 것임(장유유서). 어린아이는 아직 철들지 않은 존재이니까. 유가가 어른이 되라고 하니까 도가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존재(자연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임.

•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으뜸이 될 수 없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이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생성보다 앞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 홀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행하여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모체(母體)라 할 만한 것이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도(道)라 이름지었고 억지로 그것을 대(大)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Zola Guide 밑줄 친 부분이 핵심. 유가면 하늘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가 없음!

• 도(道)를 잃게 되자 덕(德)이 있게 되었고, 덕이 없어지자 인(仁)이 생겨났으며, 인이 없어지자 의(義)가 생겨났고, 의가 없어지자 예(禮)가 생겨났다. 무릇 예란 충신이 희박해지므로 해서 나타났으니 환란의 시초이다.

☞ Zola Guide 유가면 '인' 앞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음. 인=하늘이기 때문. 밑줄 친 부분이 anti 유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도가적 문구임.

• 큰 도는 흘러 넘치니 좌우 어디로든지 흐를 수 있다. 만물이 그에 의뢰하여 생성되었건만 도는 말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덮어 기르나 주재(主宰)하지 않는다.

☞ Zola Guide 유가의 하늘은 '주재'하는 하늘임. 16-수능-16번 선지 ⑤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보는 입장은 유가임.

•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고, 신(神)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게 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나고, 후왕(侯王)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하니, 곧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Zola Guide 유가면 하늘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얻을 필요가 없음. 하늘 그 자체가 순선[仁]하기 때문에 맑은 존재임.

•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물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귀하고 남은 천한 것이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것이다.

☞ Zola Guide 귀천, 옳고 그름, 선악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 즉 유가적 분별이 절대적 진리가 되지 못함을 비판함.

3. 불교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09 개정]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한다.

•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 세 개 갈대가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된다.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한다.

•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사람이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한 티끌의 먼지 입자에도 무수히 많은 붓다들이 존재한다.

• 중생의 은혜라는 것은 곧 처음 시작된 곳이 없어서 일체 중생이 돌고 돌아 백천겁을 지내는 동안 여러 번 태어나는 가운데 서로 부모가 되었다. 서로 부모가 되었던 까닭에 일체의 남자는 곧 자애한 어버이요, 일체의 여자는 곧 자비한 어머니이니, 옛날에 태어났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으므로 현재의 부모와 평등하며 차별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옛적 은혜도 오히려 갚지 못하였거든 혹 망령된 업(業)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모든 것을 어기고 집착하는 까닭에 도리어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왜일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전생에 일찍이 부모였으므로 은혜를 갚아 서로 이롭게 함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 것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

•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성제(苦聖諦)]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오온(五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Zola Bonus] 사상 구분해~
(유교, 불교, 도가 중에서 선택하면 됨. 단, 2가지 이상 사상에 해당하는 진술도 있고 또한 답이 없는 것도 있음)

17)하늘이 뭇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18)화두(話頭)를 사용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생각하고, 적정(寂靜)의 상태에 도달하여 일체의 잡념을 떨어내며, 자기의 기원을 성취하고자 정진한다.
19)한 포기 풀이든 큰 나무이든 미인이든 추한 사람이든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은 모두 하나이다.
20)만물은 무상(無常)하므로 무명(無明)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21)천지도 나와 함께 생긴 것이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를 이룬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이밖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22)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름이 있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23)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저것에 기인한다.
24)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25)도(度)를 넘어서는 욕망 추구를 배제한다.
26)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27)도(道)가 사라지자 덕(德)이 나오고 덕이 사라지자 인(仁)이 나오게 되었다.
28)성실함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29)인위(人爲)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에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30)고행(苦行)을 통해 도덕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31)하늘은 저절로 높고 땅은 본래 두터우며, 해와 달은 저절로 빛나고 별도 스스로 빛난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인의(仁義)를 말할 필요가 있는가?
32)연기(緣起)를 깨달아 자신을 실체로 인식한다.
33)불성(佛性)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34)도(道)가 장차 시행되는 것도 하늘의 명(命)이며 도가 장차 없어지는 것도 하늘의 명입니다.
35)하늘의 도(道)는 겨루지 않고도 이기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36)성인(聖人)은 무위의 일에 처하여 말없이 행하고 만물이 일어남을 간섭하지 않으며, 생겨나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고도 뽐내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거하지 않는다.
37)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고, 신(神)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게 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난다.
38)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본성이 있다. 베짜서 옷 해 입고, 밭 갈아 밥을 먹으니, 이것을 두고 본성이 같다고 한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한결 같아서 편을 가르지 않으니,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이다.
39)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겠지. 미꾸라지도 그럴까?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산다면 겁이 나서 떨 수밖에 없을 것일세. 원숭이도 그럴까?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거처(居處)에 대해 바르게 안 것일까?
40)모장(毛嬙)이나 여희(麗姬)는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 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린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는가?
41)일이 없으면 놓아 버리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하여, 일을 조치할 때 의리에 맞는 도리를 얻어야 한다.
42)참된 사람은 삶을 받아도 기뻐하고 삶을 잃어도 기뻐한다.
43)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어렵고,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
44)군자는 만물(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금수초목)을 사랑한다.
45)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없는 세계들을 모두 본다. 한 개의 티끌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티끌마다 모두 그러해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zola zola zola 풀어!!

☞Zola Guide 윤리와 사상 및 고난도 문제들이 있음. 그러니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할 것!

46)[ebs+기출, 주관식] 유、도、불 사상을 구분하시오. 단, 사상이 중복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주의할 것.
① 우주 만물은 연기의 원리에 따라 생멸한다.
② 자연의 모든 존재는 무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③ 우주 만물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
④ 자연은 만물을 화육하는 도덕적 존재이므로 인간은 이를 본받아야 한다.
⑤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47)[11-6-15, 윤리] (가), (나) 사상에 나타난 '천(天)'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천(天)이 뭇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들이 마음에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나) 소나 말이 네 다리가 있는 것이 천(天)이고,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의 코를 뚫는 것이 인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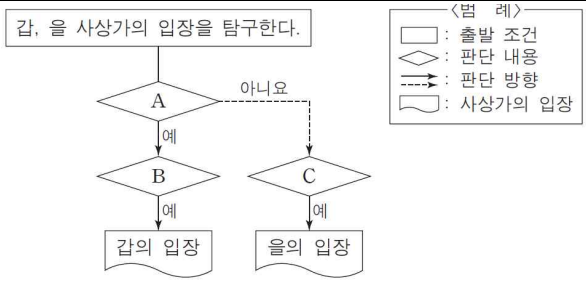
① (가)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자연법칙으로 보았다.
② (가)에서는 인간이 제어하여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③ (나)에서는 만물이 지닌 자연 그대로의 본성으로 보았다.
④ (나)에서는 만물의 운행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⑤ (가), (나)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다.

48)[17-수능-1, 윤사]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스승님, 사회가 혼란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승: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네. 제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여 인(仁)을 실천해야 하네.

①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②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③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해 양생(養生)의 수련을 해야 한다.
④ 성현이 제정한 예악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⑤ 내세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49)[16-6-4, 윤사]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군자(君子)는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순임금도 어려워했다. 을: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나)	

① A: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② B: 문명(文明)의 발달이 없는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③ B: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④ C: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⑤ C: 시비선악의 분별을 통한 무위(無爲)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50)[ebs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것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에 비항 크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만물에는 크지 않은 것이 없게 되며, 그것에 비하여 작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물에는 작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보기>
ㄱ. 선악이나 시비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인가?
ㄴ. 자연의 순리를 따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ㄷ. 제도와 규범이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한 것인가?
ㄹ. 물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귀하고 남은 천한 것인가?

51)[ebs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나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갑이라는 사상가가 "성실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라고 한 것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을 사상가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을 사상가는 [㉠]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본다.

<보기>
ㄱ. 인간이 가진 도덕성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ㄴ. 하늘은 인간과 다른 존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ㄷ.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ㄹ.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인(仁)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52)[ebs 활용, 주관식]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몽땅 고르셈~

> (가) 큰 도[大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허위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孝)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忠臣)이 나타났다.
> (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환경도 황폐화되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보기>
ㄱ.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ㄴ. 자연에 도덕적 원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ㄷ. 자연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ㄹ.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53)[18-6-4, 윤사, 주관식]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zola 골라!

>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보기>
ㄱ.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ㄴ.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ㄷ.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ㄹ.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愼獨)을 실천해야 한다.

54)[15-9-3, 윤사]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 을: 누구나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마음[所不忍]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인이다. 누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所不爲]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 의이다.

① 인의가 본래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② 인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③ 인의가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인의가 결과의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⑤ 인의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5)[17-6-20, 윤사]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서(醫書)에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을 '몸이 불인(不仁)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손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인일 것이다.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천지는 한 몸이고 천지 사이의 만물은 자신의 몸과 같다. 무릇 사람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①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② 의술(醫術)을 행하여 자기 몸의 건강을 보전할 것을 강조한다.
③ 사회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를 강조한다.
④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고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다.
⑤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

56)[21-수능-14, 윤사]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Zola Guide 지식적으로 모르는 선지가 있더라도 '정답'은 생윤 지식으로 나옴.

> 갑: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樹木)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자연의 도(道)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 을: 선비[士]가 거처해야 할 곳은 인(仁)이며,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의(義)이다. 인에 거처하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다.

① 언어[言]로 도에 이를 수 있고 인위로 인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②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누구나 따라야 할 도가 존재하는가?
③ 도를 행하면 분별적 지식이 늘어나고 타고난 덕성이 함양되는가?
④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禮)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가?

57)[12-수능-1, 윤리]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緣]하여 행(行)이 있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긴다. 무명이 멸(滅)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① 연기(緣起)를 통해 만물의 실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② 수행을 통해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닫는다고 본다.
③ 불성을 어둡게 하는 삼독(三毒)이 고통을 낳는다고 본다.
④ 오온(五蘊)으로 된 '나'에 대한 집착이 탐욕을 만든다고 본다.
⑤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이 자비(慈悲)를 일으킨다고 본다.

58)[10-수능-17+11-수능-3, 윤리]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 기분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 않고 괴로운 감촉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유쾌하거나 괴롭거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 좋다고 취하거나 싫다고 내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소멸되며 어리석음이 사라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① 만물은 절대 불변한다는 원리를 체득한다.
② 불성을 생성하기 위해 바라밀을 실천한다.
③ 연기(緣起)를 깨달아 자신을 실체로 인식한다.
④ 지혜(智慧)를 닦아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59)[13-6-15, 윤리]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여러 인연(因緣)으로 생긴 법을 무(無)라고 하며, 거짓 이름〔假名〕이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空) 아닌 것이 없다.

①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② 허심(虛心)으로 시비와 선악을 엄격하게 분별해야 한다.
③ 무명(無明)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성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
④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⑤ 현실적 존재로서 '나'가 타인과 분리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60)[20-4교-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애욕(愛欲)의 불길을 '혹'하고 불어서 꺼,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고, 중도(中道)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①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을 추구한다.
② 연기(緣起)를 자각하고 양극단의 치우침에서 벗어난다.
③ 번뇌(煩惱)를 제거하여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④ 바른 수행을 통해 불변의 자아(自我)를 확립하고자 힘쓴다.
⑤ 윤회(輪廻)를 거듭하기 위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린다.

61)[22-수능, 윤사]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열반이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 멸하여 모든 번뇌가 영원히 멸한 것이다. 열반을 얻는 도(道)가 곧 팔정도(八正道)이니 닦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
> 을: 지인(至人)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노니는[遊] 자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따라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② 갑: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③ 을: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④ 을: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⑤ 갑, 을: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1-3: 서양 윤리

☞ Zola Guide (1) 5종 교과서 중 1종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은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담론 윤리를 다른 단원에서 다룸. 단, Zola는 담론 윤리를 제외한 서양 윤리를 여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다루는 내용은 공리론, 의무론, 덕 윤리론,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도덕 과학적 접근임. 담론 윤리는 6단원에서 다룸. (2) 사상가의 제시문 출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각 교과서(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ebs 수특・수완, 원전 등을 포괄함.

1. 공리주의

(1) 벤담("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등등)

1)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것들의 옥좌에 걸려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그 지배를 뿌리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력은 단지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증하거나 확증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2)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공리란 어떤 대상 속의 성질로서 그것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익、편의、쾌락、선、행복을 가져다주고 손해、고통、악、불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각각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ㄷ. 그리고 그런 까닭에 내가 말하는바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3) 공리를 계산하는 7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강력성, ② 지속성, ③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 근접성, ⑤ 다산성(즉 그것이 동일한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쾌락, 고통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 ⑥ 순수성(즉 그것이 반대의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모든 고통, 고통인 경우에는 모든 쾌락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 ⑦ 그 범위(즉 그것이 미치는, 또는 [바꿔 말하자면]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 Zola Guide 제시문 공부할 때 주의사항 확인!

(2) 밀

1)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일을 헤아릴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측정할 때에는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2)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인 편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인 편이 더 낫다. 그리고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이 문제에 있어 오직 그들 자신의 측면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과 비교되는 상대편, 즉 사람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3)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은 수준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ebs(Zola 수정), 비상] 공리주의와 장점과 단점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전제하는 총량 이론을 따른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구성원 다수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입안・실행되는 정책의 정당화 논리로 작용한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 결정 원리로 작용하는 다수결 원칙은 공리주의적 사고에 근거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평등주의를 거부하고 소수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마저도 선한 행위라고 본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침해할 수 있다.

2-1. 의무론 1: 자연법 윤리

☞ Zola Guide 스토아 학파는 5종 교과서 중에서 지학사만 다루고 있음. 그것도 갈등과 소통 윤리(6단원)에 나옴. 그런데 ebs가 자연법 윤리에 스토아 학파를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스토아 학파는 개정 전 교과서에서 다루었음.

[교과서 읽기]

(1) 미래엔

(칸트가 아닌) 의무론적 접근의 예로는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에서 자연법 윤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 윤리는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한다.

자연법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비상교육

자연법 윤리에서는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이 존재하고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통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긴다. 자연법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담겨 있으며,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 그리고 진리 추구와 같은 자연적 성향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와 같은 자연법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여 윤리적 실천을 하는 것을 인간의 의무로 본다. 이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 나아가 신의 질서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지학사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며,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니므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종, 혈통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세계의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상(세계시민주의, 만민 평등 사상)을 제시하였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상이 세계 시민주의이다.

[참고] 스토아 학파의 주장('윤리와 사상', 씨마스)

- 인간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고유의 본성, 즉 이성에 따라 움직인다.
- 이성을 통해 자연과 신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 윤리적 삶이란 이성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 행복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스토아 학파 주요 제시문] 출처: 윤리와 사상 교과서, ebs, 평가원 기출(윤리) 제시문

(1)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부여받았는가? 자유롭게 고귀하고 공경스럽게 행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고 자연에 따라 행위하도록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으로서 그들의 신하로서 이 의무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 본성이기 때문이다.

(2)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소에게는 소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으며, 돌에는 돌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너는 네 운명에 불만인가? 보편적인 자연은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3)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내가 그것을 잃어 버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되돌아간 것이다. 땅을 빼앗겼는가? 그것 또한 제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준 사람이 너에게 되돌려 달라고 한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

(4) 잔칫집에 가서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재촉하지 마라. 너를 모욕하는 것은 홀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대받고 있다는 너의 믿음이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할 때,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마음의 평온은 너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적인 통찰에서 오는 것이다.

(5) 너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 연극의 길고 짧음은 이미 작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너는 단지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해야 한다.

[아퀴나스 주요 제시문]

(1) (신학대전) 첫째로 인간에게는 모든 실체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향하는 경향성이 내재한다. 말하자면 모든 실체가 자기 본성에 따라 자기의 보존을 욕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향성에 따라, 그것들을 통해 인간의 삶이 보존되며, 그 반대(삶의 파괴)가 막아지는 것들이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인간 자신에게) 보다 고유한 어떤 것(선들)을 향하는 경향성이 내재한다. 이에 따라 자연이 모든 동물에 가르쳤던 것, 즉 남녀의 결합, 자녀의 양육,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라 말해진다. 세 번째 방식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의 본성에 따른 선을 향하는 경향성이 내재한다. 마치 인간이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경향성과 관련하는 것들이 자연법에 속한다. 즉 인간은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살아야만 하는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는 이런 방식의 나머지 것들이 그러하다.

(2) (포이만 외, "윤리학") 인간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것은 올바르다. 선은 행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로서, 이는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의 기초가 된다. 실천 이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선으로서 이해하는 것들은 모두 행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들의 형식 아래 있는 자연법의 계율에 속한다.

(3) (ebs) 신(神)의 이성의 영원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2-2. 의무론 2: 칸트

[교과서 읽기] 미래엔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도덕 법칙은 다음과 같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①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②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 준칙(準則, maxim): 도덕 법칙과 구별되는 개인적·주관적 행위 규칙으로 '격률'이라고도 한다.

[자료]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 정언 명령: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이다.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표현된다. 정언 명법이라고도 함.

• 가언 명령: 일정한 조건이 붙는 명령으로 "만일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행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가언 명법이라고도 함.

[표]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 비교(비상 교육)

구분	가언 명령	정언 명령
성격	조건적 명령	무조건적 명령
형식	만일 ~하려면, ~하라.	~하라.
적용 방식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적용
가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님	행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칸트는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였다. 칸트는 어떤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당 준칙을 보편 진술로 바꾼 후에 그 진술을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 진술이 이 검토를 통과하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여 도덕적 판단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천재]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

칸트는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마련하려면 준칙에 대한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를 한 후 의무를 도출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화 검사는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고, 목적 검사는 준칙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칸트 주요 제시문]

(1)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2)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의 정신의 재능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 또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 부르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3)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4) 정언명령(定言命令)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다. 가언(假言)명령, 즉 조건적 명령이 '네가 행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행위하여라.'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행위를 명령하는 것인데 반하여, 단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여라.'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들어맞는 명령을 이른다.

(5)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 일반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 그 행위가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든 간에, 항상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6)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를 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7) 우리는 실천 이성을 통하여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하여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정언명령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엇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 Zola Guide 칸트는 정언 명령의 몇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한 가지라고 말함.

(8)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9) 의무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은 불리한 결과를 염려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실하지 않은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라.'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서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구든지 진실하지 않은 약속을 해도 좋다고 나 자신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칙에 따른다면 결코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약속을 하라.'라는 나의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되자마자 스스로 파멸할 것이 틀림없다.

[ebs]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

칸트의 윤리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한 순수한 윤리의 형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형식주의란 칸트가 도덕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미래엔] 칸트의 의사 결정 과정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려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행위의 준칙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곤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생각할 때, 내가 하려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준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즉 '그 행위가 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곤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즉 '그 행위가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준칙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준칙을 거부해야 하며, 그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 '윤리학'

3. 덕윤리

[교과서 읽기] 미래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둔 현대의 덕 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덕 윤리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덕 윤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한다. 매킨타이어와 같은 현대의 덕 윤리학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 따라서 덕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를 반영한다.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덕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고 요구한다. 즉 "보편타당한 규칙을 따르라." 또는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위하여 "정직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하라."라고 요구한다.

[참고] 아리스토텔레스(윤리와 사상, 씨마스+비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의 핵심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목적론이다. 목수의 목적은 좋은 집을 짓는 것이며, 말의 목적은 잘 달리는 것이다. 그 고유한 목적이거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덕은 곧 탁월함이다. 덕을 탁월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는 행동 역시 모두 나름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 밥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행동은 그보다 상위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행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행복은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점에서 최고선이다. 모든 인간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목적이다.

[주요 제시문 1] 아리스토텔레스

(1)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이며,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덕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품성적인) 덕 두 종류가 있다. 지적은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발전하며,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도덕적인 덕은 본성에 의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인 덕은 본성과 반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습관을 통해 완전하게 얻는 것이다. 즉, 도덕적인 덕은 실천해 보고 나서 비로소 배워 알게 된다. 그러니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표] 중용의 예

부족함	중용	과도함
비겁	**용기**	무모
무감각	**절제**	방탕
비굴	**긍지**	오만

(3) 절제와 용기, 그리고 다른 덕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촌뜨기들처럼 일종의 목석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4)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행위를 알아야하고, 합리적 선택에 의해 행위를 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확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들을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행했을 법한 그런 종류의 행위들일 때이다.

☞ **[천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행위와 정의로운 행위자를 구분한다. 정의로운 행위는 모르고 하거나 우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의로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행위자는 정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며 지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주요 제시문 2] 매킨타이어

(1) 덕 교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선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선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과 당신이 당신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이 특별히 나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한 것들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형식인 우애를 공유된 선이라는 의미에서 정의하였다.

(2) 삶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제한에 예속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설치하지 않은 무대 위에 나아간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극 속에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인물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행위 속에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 무대 장치에 의해 제한된다.

(3)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질이다. 덕의 목적 중 하나는 실천들과 개인적 삶 모두에게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다.

[참고] 윤리와 사상 교과서(미래엔-09 개정)

현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우선 덕을 습관적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성품의 훌륭함이자 훈련된 행동 성향으로 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모범을 본받으려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덕이 길러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덕을 행동하려는 성향뿐만 아니라 느끼는 성향으로 봄으로써 덕의 함양에 있어 도덕적 감정 계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유연하게 파악하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다.

하지만 현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대 덕 윤리학자인 매킨타이어는 이성이 탁월하게 기능할 때 덕이 형성된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사회적 맥락과 전통과의 관련성 속에서 덕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속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Zola Guide (1) 덕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덕윤리의 일반적인 특징(공통점)이 중요함. (2) 매킨타이어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비판한 것이지 목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님.**

4. 배려윤리

[주요 제시문 1] 길리건

(1) 여성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판단이 일견 산만하고 혼돈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장점, 즉 그들이 인간관계와 의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성들이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여성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2)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프로이트, 피아제, 콜버그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것이며, 발달도 달리 묘사될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도덕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의 충돌을 들 것이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서사적인 사고방식을 들 것이다. 공정성으로서의 도덕관이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보살핌과 관련된 도덕관은 책임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둘 것이다.

(3) 여성과 남성은 인간 관계의 문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르게 경험한다. 남성적 발달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적 정체감은 독립이나 개인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와 달리 여성들의 성적 정체감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나 개인화 과정이 완성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성이 독립을 통해 규정되고 여성성이 애착 관계를 통해 규정되므로, 남성적 정체감은 친밀성에서 위협을 느끼는 반면, 여성적 정체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남성들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은 개인화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참고] 남성 중심의 윤리의 예

- 칸트 - 네 의지의 격률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롤스 -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 콜버그 - 도덕성은 도덕적 추론 또는 판단 능력이다. 도덕성의 발달이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비상교육-09 개정]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

도덕 발달 이론가인 콜버그는 개인의 도덕성은 단계별로 6단계까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때,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도덕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1단계에서는 주로 사고하는 학생은 처벌이나 신체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선생님한테 들킬 위험성이 없거나 구속될 위험성이 없으면, 남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학생의 도덕성은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단계 학생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며(예: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불리해지니까. 기록이 남으면 취직에 어려울 수도 있지.), 3단계 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4단계 학생은 법을 준수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면, 인권이나 공리주의 원리(5단계)에 따르거나, 보편적인 정의 원리(6단계)에 따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 Zola Guide 내용적으로는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에 해당함. 참고로 콜버그의 연구가 기술 윤리학의 예가 될 수 있음.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임.

[주요 제시문 2] 나딩스

(1) 배려 윤리는 보편화 가능성-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보편화 가능성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 지와 같은 문제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2)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윤리적인 배려'는 우리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연적 배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를 향한 우리의 동경과 열망이다. 우리는 서로 배려의 관계 속에 남아 있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3) 배려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자연적 배려 상태는 배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관계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자 최종 귀착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주의] 배려 윤리와 덕 윤리의 구분(ebs 탐스런)

배려 윤리가 덕 윤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들 나름의 인격이나 덕에만 집중한다면, 배려의 수혜자 혹은 피배려자들은 소외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배려의 수혜자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을성 있고, 관대하고, 쾌활한 것과 같은 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배려의 관계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 Zola Guide 배려 윤리는 덕으로서의 배려보다는 배려하는 관계 자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5. 책임윤리-요나스

(1)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2)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은 현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자연 그 자체를 위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와의 역사적 연대성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도 현세대가 누리는 것만큼이나 생명력 있는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과적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환경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예견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3)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다. "너의 행위의 영향이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4)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들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 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항을 통해 이 대립에 의해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5)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책임은 의무로 인정된,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며, 이 염려는 그 존재의 민감성이 위협받을 경우 근심이 되어 버린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원초적 질문 속에 이 공포는 이미 하나의 잠재력으로 내포되어 있다. 즉 내가 그것을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답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책임은 더욱더 밝게 그려진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신의 평안과 고통과는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방식에 있어서 낯설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은 천리안적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을 그것을 위해 동원해야만 한다. 즉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새로운 대상물을 찾아내어 공포에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일깨워진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알게 해준다.

(6)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전통 윤리학은 언제나 인간적 선의 장려, 타인의 권리 내지 타인에 대한 관심의 존중, 그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개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완화를 강조해왔다. 인간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 자신,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물론 전통 윤리학의 규범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구속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전 생태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부당한 침해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훼손 가능성에 직면하여 자연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 즉 그들의 고유한 목적 자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의 확대된 시야는 인간적 선과 생명 일반의 문제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묶어 인간 아닌 다른 존재자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권리까지도 인정한다.

(7)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격률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직접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하라.' '너의 이웃 사람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등등. 이 모든 격률에서 행위자와 그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8) 후세의 인간은 어쨌든 실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를 타락시켰다면, 불행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미래 세대에게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그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는 현재의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성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원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인간만이 오로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의 특성은 동시에 인간은 자기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런저런 관계에 있어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다.

(10) [K대 논술 자료]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풍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급속한 발달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 윤리적 숙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나스 (Jonas, H.)는 과학 기술의 발달 및 경제적인 풍요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인 숙고의 차이를 '윤리적 공백'으로 표현하면서 전통적인 윤리의 틀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요나스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라면서 "너의 행위의 영향이 지구상에 진정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되도록 행위하라"는 책임 윤리를 강조하였다. 복잡하고 익명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공동 책임 내지 집단 책임은 무책임으로 함몰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과 다른 사람에 대해 지니는 책임 자체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루는 윤리를 책임 윤리라 한다. 책임 윤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행동이든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 윤리는 함께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자신의 책임 범위는 단지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

(11) '요나스의 미래윤리와 책임'("동서철학연구" 제 36호, 이유택, pp. 127~128.)

요나스는 여러 가지 책임 가운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간의 비계약적, 비대칭적, 비호혜적 관계에서 성립하는 책임이야말로 "자연에 의해 규정된, 즉 저절로 존립하게 된 책임"으로서 "사전의 어떤 동의에도 의존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고, 해약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스는 부모의 책임을 "가장 근원적인 책임"이자 시간을 초월한 "모든 책임의 원형"이라고 본다. 특히 갓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은 … "절박하고, 분명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신생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총체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하다."

(12) 요나스의 책임 윤리(지학사)

요나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비유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책임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에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중단되면 안 되는 영속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필요한 세 가지 까닭을 설명하였다. 첫째, 과학 기술이 미치게 될 향후 결과의 모호성이다. 핵에너지와 같이 합법적인 목적을 사용한 기술이더라도 위협적인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용의 강제성이다. 과학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가능성은 그것을 적용하려는 요구가 지속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셋째,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이다. 과학 기술은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미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 도덕 과학적 접근

[교과서 읽기] 미래엔

윤리학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도덕 과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덕 과학적 접근으로는 신경 윤리학과 진화 윤리학이 있다.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신경 윤리학에 관하여 알아보자.

철로 수리공인 게이지는 작업 중 사고로 쇠막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다. 모두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게이지는 사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그는 변덕스러워졌고, 거짓말을 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었다. 또 그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게이지의 언행을 연구한 신경학자 다마지오는 게이지와 유사한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김효은, 「신경 윤리에서 보는 감정」-

위 사례는 신경 윤리적 접근을 통해 정서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접근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 근거를 통해 밝힌 것이다.

진화 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신경 윤리학이나 진화 윤리학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도덕적 삶의 방향이나 목적의 설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오늘날 당면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도덕 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Zola 선물(?!): 나름 고난도 <<윤리와 사상>> 문제 모음

☞ Zola Guide 생윤 지식 안에서 풀지 못하는 선지는 있음. 그러나 '답'은 골라 낼 수 있는 문제들임.

62)**[Zola 공리주의 개념 활용 연습] 공리주의임. OX 하셈. ★★★★★★★★★★**

①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② 인간은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감내를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③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④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 원리로 삼을 수 없다.
⑤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⑥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⑦ 도덕 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⑧ 나와 남이 동시에 이익을 봐야 한다.
⑨ 나의 쾌락보다 타인의 쾌락을 더 중시해야 한다.
⑩ 원조(남을 돕는 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⑪ 행위 주체의 행복 증진은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63)**[Zola 칸트 뇌피셜 연습] 칸트임. OX 하셈. ★★★★★★★★★★**

①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할 수 있다.(18-수능, 20-6, 윤사)
② 행복의 원리는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18-수능, 20-6, 윤사)
③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8-수능, 윤사)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8-수능, 윤사)
⑤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21-6, 윤사)
⑥ 쾌락의 추구는 개인의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21-6, 윤사)
⑦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20-9, 윤사)
⑧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19-수능, 윤사)
⑨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19-수능, 윤사)
⑩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19-6, 윤사)
⑪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23-수능, 윤사)
⑫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2-수능, 윤사)

64)[22-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 을: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① 갑: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② 갑: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을: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⑤ 갑, 을: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65)[17-6, 주관식]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합니다. 을: 쾌락의 양으로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쾌락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기>
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한다.
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이다.
ㄹ.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66)[14-수능, 제시문 격정적으로 변형]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는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해. 을: 그건 니 생각이고. 나는 개별적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행위의 옳음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갑: ㅂㅅ야!~ 그렇다면 네가 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일까? 을: 내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옳은 행위이지.   갑 : ....내 생각에 너는 너의 [㉠]

① 거짓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② 거짓말은 실천 이성이 세운 도덕법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③ 거짓말은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④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⑤ 거짓말이 낳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67)[17-6]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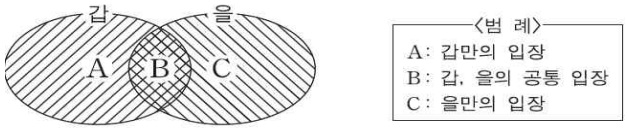
①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④ 선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8)[22-6, 주관식]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恣意)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을: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 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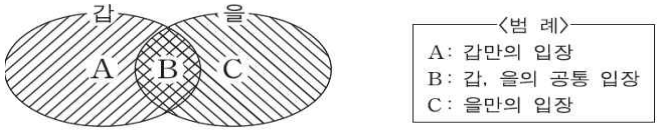
<보기>
ㄱ. 갑: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ㄴ.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ㄷ. 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
ㄹ. 갑, 을: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69)[19-6]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
(나)	

<보기>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0)[17-9, 주관식]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행복은 이성의 이상(理想)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상상력의 이상이다.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며, 선의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이어야 한다. 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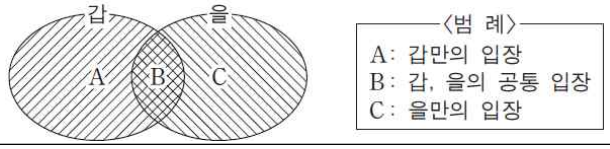
<보기>
ㄱ. A: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은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ㄴ. B: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원리로 삼을 수 없다.
ㄷ. B: 보편적 도덕원리를 통해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ㄹ. C: 도덕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71)[16-수능+21-수능, 주관식]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해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 을: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보기>
ㄱ. 갑: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ㄴ. 갑: 무조건적 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ㄷ. 을: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양립 가능하다.
ㄹ.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
[추가] ㅁ. 갑, 을: 도덕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

72)[16-9, 주관식]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나)	

<보기>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73)[20-9]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74)[23-9, 고난도 But 바나나]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5)[17-6 일부, 주관식]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갑: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자의 운명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보기>
ㄱ. 갑은 이성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갑은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 지혜롭다고 주장한다.

76)[17-수능 일부만, 주관식]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갑: 충동과 욕망이 생길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선 그것이 올바른지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신성한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선한 삶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에 만족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보기>
ㄱ. 갑은 우주의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고 본다.
ㄴ. 갑은 인간이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이성적 사고를 토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77)[11-9] 다음 고대 서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내가 그것을 잃어 버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되돌아간 것이다. 땅을 빼앗겼는가? 그것 또한 제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준 사람이 너에게 되돌려 달라고 한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

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세계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정신적 관조를 통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이성적 자각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④ 실천적 지혜로 자신의 주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⑤ 육체적 쾌락을 억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78)[17-9+23-수능]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영원법은 모든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다. 만물은 신으로부터 영원법을 통해 각자의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원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실정법은 이성이 따르라고 명령한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①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②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라고 본다.
③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자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79)[ebs 이것 저것, 주관식] 아퀴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보기>
ㄱ. 자연적 욕구 중에는 동식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있다.
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령은 자연법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ㄷ. '결혼하여 자손을 늘리라'는 명령은 자연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ㄹ.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므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ㅁ. 이성적인 심사숙고가 반영된 절제, 용기와 같은 덕은 자연법에 부합한다.

80)[18-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81)[23-6 일부, 주관식]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셈.

> 갑: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보기>
ㄱ. 갑: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갑: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ㄷ. 갑: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2)[19-수능, 윤사]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Zola Guide 생윤 지식만으로도 선지 조합상 답은 도출됨. 만약 답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생윤 지식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임.

>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의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므나* 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 므나(mna) :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보기>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3)[18-수능]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 을: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 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① 갑: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갑: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을: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④ 을: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84)[18-9]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 생: 선생님,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도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선생님: 사람들이 정의만을 중시하고 배려는 소홀히 해 와서 그래요. 학 생: 그러면 배려를 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 먼저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
② 도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감성적인 관점보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에서 타인에 대한 보살핌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인간적 유대를 쌓아 나가야 한다.

85)[17-수능 일부, 주관식]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을: 우리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배려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기초한다. 배려의 관계는 배려의 노력을 수용할 때 완성된다.

① 을은 도덕 행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배려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 타인의 감정 이해와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

86)[17-9, 주관식]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도덕적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여성에게서 잘 발휘되는 배려의 도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을: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보기>
ㄱ. 갑은 정의 중심의 윤리가 유일한 도덕규범은 아니라고 본다.
ㄴ. 을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여성만이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87)[14-수능 일부] (가)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성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타인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지려고 한다.
(나)	(A): '정의(正義)'

① 사회적 맥락과 책임에 기초한 여성 중심적 덕목이다.
② 인간관계에서 친밀함과 동정심을 강조하는 덕목이다.
③ 인간의 도덕 발달을 위해 배려와 더불어 필요한 덕목이다.
④ 판단하기보다는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덕목이다.
⑤ 남녀의 도덕적 성숙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덕목이다.

88)[16-6, 주관식]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는 최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관처럼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 을: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논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특수한 관계에서의 배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보기>
ㄱ. 갑은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추론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ㄴ. 을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ㄷ. 을은 갑에 비해 관계성을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인지 능력의 발달보다 정서 함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89)[15-6]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정의와 공정성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도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배려와 동정심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① 도덕 교육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② 도덕 교육에서 인정(人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③ 도덕성에 있어 남녀의 성차(性差)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④ 도덕성에 있어 원칙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⑤ 도덕성과 도덕 교육에서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90)[19-수능, 주관식]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 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기>
ㄱ. 갑: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을: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ㄷ. 을: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ㄹ. 갑, 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91)[15-9]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생명체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희생된 생명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인류의 생존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도덕의 명령은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언 명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 의식을 [㉠]

① 미래와 전 지구적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② 행위의 직접적 결과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각 개인의 삶의 개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④ 기술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인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⑤ 자신의 독립된 자아에 대한 주체 의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92)[18-9-16, 생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93)[18-6-2, 생윤]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94)[ebs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현 세기에 들어오면서 위험은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 책임이 최근에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위험은 하나의 책임을 눈앞에 보여준다. 이 책임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없이 자신 외의 다른 것들과도 유대해야 하며, 자신의 존재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대를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ㄱ. 과학 기술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ㄴ. 책임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의미한다.
ㄷ. 인간 중심주의적인 기존의 전통 윤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ㄹ. 현재의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95)[ebs 활용, 윤사,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전통적 윤리학에서 인간의 의무 대상은 지구 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간 자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부당한 침해와 그로 인해 빚어진 훼손 가능성에 직면하여 자연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 즉 그들의 고유한 목적 자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 선과 생명 일반의 문제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묶어 인간 아닌 다른 존재자의 생명의 고유한 권리까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먼 미래를 예견하고, 지구의 전 영역을 인과성의 의식 속에 포함시키는 책임의 윤리학을 수용해야 한다.

<보기>
ㄱ. 생명이 있는 존재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ㄴ. 인간의 본질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ㄷ. 인간은 생명의 지속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ㄹ. 인간 행위의 결과와 부작용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1-4: 도덕적 추론

☞ Zola Guide (1) 별도 학습이 필요한지 여부는 그해의 6평과 9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강의 여부도 그해 6평과 9평을 보고 판단함. (2) 수능 생윤이 아니라 논술이나 구술을 하기 위한 필수 도구(사고법)임.

1. 도덕적 추론의 의미: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

2. 도덕적 추론의 과정

구분		사형 제도 찬성	사형 제도 반대
대전제	도덕 원리 (보편적 가치)	범죄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은 정당하다.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			
소전제	사실 판단 (참, 거짓을 가려내는 판단)	사형은 범죄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이다.	사형은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다.
⬇			
결론	도덕 판단 (개별적 가치)	사형은 정당하다.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

3. 주의점

(1) 하나의 도덕 판단(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 근거나 도덕 원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음

(예) 낙태는 옳지 않다는 도덕 판단을 뒷받침하는 도덕 원리로는 '의무론'과 '공리론'이 모두 가능함

(2) 도덕 원리에 따라 서로 정반대의 결론이 정당화될 수도 있음

(예) '의무론'은 낙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공리론'은 낙태는 옳다는 판단이 가능함

4. 도덕 원리 검사 방법

반증 사례 검사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가 들어 맞지 않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법
역할 교환 검사	자신이 주장한 도덕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보편화 결과 검사	문제가 되는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이 채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그 원리가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방법
포섭 검사	이미 제시된 원리가 도전을 받은 경우 상위의 원리에 포함시켜 정당화하는 방법

☞ Zola Guide

zola 연습

출처: 교과서, 평가원, 참고서, 논술 문제

※ 빈 칸을 완성하시오.

96) **1. 결론이 제시된 경우 1**

도덕 원리(대전제) :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 판단(소전제) : _____
도덕 판단(결론)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97) **2. 결론이 제시된 경우 2**

도덕 원리(대전제) : _____
사실 판단(소전제) : 임신 중절은 여성의 선택 사항이다.
도덕 판단(결론) : 임신 중절은 존중되어야 한다.

98) **3. 결론이 없는 경우**

도덕 원리(대전제) :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 판단(소전제)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결론) : _____

※ 지시 사항을 따르시오.

99) 다음의 빈 칸을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도덕 원리 : _____
사실 판단 : 맡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 : 맡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100) [17-6 활용] 전제 [2]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시오.(그림 생략)

전제 [1]: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전제 [2]: _____ ㉠ _____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101) [17-9 활용] 전제 [2]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시오.(그림 생략)

전제 [1]: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제 [2]: _____ ㉠ _____
결론: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Zola 풀어!

※ ( ) 채우기

102)도덕 추론 과정을 구성하는 판단은 ( ) 판단과 ( ) 판단이 있다.

103)법칙, 원리, 전제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는 사고 방법을 ( )적 사고라 한다.

※ 맞으면 O, 틀리면 X

104)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대전제보다 소전제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105)소전제가 대전제 앞에 있다면 도덕 판단은 틀리게 된다.

106)소전제가 대전제 뒤에 있다면 도덕 판단은 틀리게 된다.

107)사실 판단은 참인 판단만을 의미한다.

108)도덕 추론에서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109)도덕 추론에서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110)"그는 칸트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그는 칸트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라고 사고했다면 이는 논리적 사고이다.

111)[ebs 활용, 주관식] (가)의 주장을 (나)의 표로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인공 임신 중절은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나)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

<보기>

ㄱ. ㉠은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이다.

ㄴ. ㉠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원리여야 한다.

ㄷ. ㉡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ㄹ. ㉢은 '인공 임신 중절은 금지되어야 한다.'이다.

1-5: 토론과 밀의 '자유론'

☞ Zola Guide 밀의 '자유론'은 사랑과 성의 윤리(교재 번호 2-3), 국가와 윤리(교재 번호 3-8), 정보 사회(교재 번호 4-2), 다문화 윤리(교재 번호 5-3), 소통의 윤리(교재 번호 6-1)에서도 다루어짐.

1. 밀의 "자유론" 모음

(1) 모든 토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같은 것이다.

(3) 하나의 의견 발표를 침묵하게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4) 개별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신의 율법처럼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 체제라 할 수 있다. 사회에는 남이 하지 않는 관례를 처음 만들고, 더욱 발전된 행동과 더 수준 높은 취향과 감각을 선보이는 사람도 필요하다. 인간은 양 같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인류가 지금처럼 이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토론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인류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정신의 한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6) 자유의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방어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u>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u>

☞ Zola Guide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임.

(7)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 **Zola Guide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경우)을 제시한 부분임.**

(8) 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될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통념을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으며,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재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2. 윤리적 성찰-이황

동양에서는 윤리적 성찰을 위한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황의 경(敬)이 있다. 이는 마음을 한 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고[주일무적(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정제엄숙(整齊嚴肅)],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상성성(常惺惺)]는 것이다.

☞ **Zola Guide 이황은 유학자(성리학자)이므로 우리가 배운 유학의 기본 지식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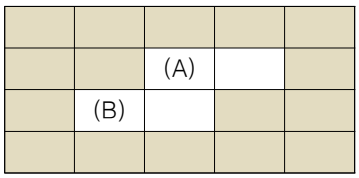
zola 풀어!!!

112)[15-6+16-6+ebs 응용]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

>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⑦ 오류로 판명한 의견이라도 일부 진리가 포함될 수 있다.
⑧ 한 개인이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13)[16-3교-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나)	 [가로 열쇠] (A) :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협의함.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 (B) : 일반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 □□ 조사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다수의 의견이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는 숙고의 과정이다.
② 인간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③ 기존의 진리에 대해 복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④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진리를 찾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다.
⑤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유일한 목표로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이다.

114)[ebs 활용] 제시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敬)의 공부는 다음과 같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主一無適]이고,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것[整齊嚴肅]이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常惺惺]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속하여 한 가지의 잡념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① 세상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② 시비(是非)의 분별에서 벗어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
③ 연기성을 깨달아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④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⑤ 나[我]에 대한 집착으로 생긴 탐욕을 버리고 해탈을 추구한다.

zola amazing 답 + Zola Guide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오답률이 10% 넘어가는 선지들은 주의깊게 살펴보되 10%보다 낮은 선지들은 별도의 분석 필요없이 가볍게 넘어가도 됨.

---

1) 기술
2) 기술
3) 기술
4) 규범(이론, 실천)
5) 규범(이론)
6) 이론(규범)
7) 메타
8) 메타
9) O
10) O
11) O
12) O
13) ① 규범 이론, ② 메타, ③ 기술, ④ 메타, ⑤ 규범 실천
14) ③
15) ㄷ, ㅁ

[설명]

(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 규범 이론 윤리학
(나):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다):실제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규범 실천 윤리학
ㄱ. (가): 생명 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 규범 실천 윤리학
ㄴ. (나): 인생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ㄷ. (나):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메타 윤리학
ㄹ. (다):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ㅁ. (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인가, 자선인가? ⇉ 규범 실천 윤리학

16) ㄱ, ㄴ, ㄷ, ㄹ
17) 유
18) 불
19) 도
20) 불교를 가장한 사기꾼. 아무 사상도 아님
21) 도
22) 도
23) 도
24) 불
25) 모두
26) 모두!!!
27) 도
28) 유
29) dog voice~도가 아님. 도가를 가장한 틀린 문장
30) 아무 것도 아님. 불교를 가장한 헐~임
31) 도
32) X
33) 너나 하세요..불교는 불성을 타고나는 것으로 봅니다...
34) 유
35) 도
36) 도
37) 도
38) 도
39) 도
40) 도

41) 유
☞ Zola Guide '의리에 맞는 도리'가 핵심이네요. 의리는 인의예지의 '의'입니다. 앞 부분을 도가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도가로 확정짓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도가면 의리 인의예지에 맞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42) 도. 참된 사람=진인. 삶을 받아도 기뻐하고 잃어도 기뻐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43) 도(ebs 수완) '잊는다'가 좌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됨.
☞ Zola Guide 이 문장이 왜 도가인지 모르겠다에 대한 Zola 설명임.
문장을 보면

공경으로써 효도한다 ⇉ 님이 파악한대로 유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각색(?!)할 수 있을 겁니다.

"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어렵고, 사랑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
⇉ 유가의 효는 쉬움.....(중간은 별 의미 없음).....".내 부모라는 인간적인 감정/윤리/경험"을 잊기는 어렵다.

도가의 좌망이 반드시 앉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죠. 도가는 인간의 분별적 지혜/상대적 경험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 유
45) 불
46) ① 불, ② 도, ③ 해당사항 없음(서양의 기계론), ④ 유, ⑤/⑥ 유、도、불 모두
47) ③
☞ Zola Guide 정답률 90%의 문제임. 공부'만' 착실히 하면 됨. 홧팅~~

48) ②

4%	92%	3%	1%	0%

49) ③

9%	4%	64%	6%	17%

☞ Zola Guide ③을 고르지 못해도, 나머지 오답 선지 4개를 확실하게 제낄 수 있어야 함. 오답 선지들을 잘 확인해 둘 것.

50) ㄱ, ㄴ, ㄹ(22년 ebs 수특 참고함)
☞ Zola Guide 'ㄹ'이 출제되면 최고 난이도가 될 것임. 실제로 윤사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고, 다들 전멸 당했음. 도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없는데, 다른 것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됨.

51) ㄱ, ㄹ
52) ㄱ, ㄹ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53) ㄱ, ㄷ
54) ③

9%	9%	71%	2%	9%

☞ Zola Guide 도가(갑)가 유가(을)을 비판하는 문제임.

55) ①

74%	9%	9%	4%	4%

☞ Zola Guide 우리나라 코로나 1번 환자(중국인)가 퇴원하면서 의자인심(醫者仁心)이라는 감사 편지를 쓴 것이 기억나서 선별해 봤음. 이 제시문이 그것과 관련되는 제시문임. 님들이 아래 글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음.
[서울신문] "의자인심(醫者仁心)" 신종코로나 1번 환자 오늘 퇴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500052

56) ⑤
57) ①

60%	17%	6%	10%	7%

☞ Zola Guide ① 불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봄. 그게 연기법이고 공(空)임. 12쪽에 인용된 '천재' 교과서의 불교 설명 부분을 확인할 것.

58) ⑤

2%	6%	5%	3%	84%

☞ Zola Guide ② 동양 사상의 공통점에서 바나나 선지 설명을 하였음. 강의 다시 확인해 볼 것. 불성 '생성'이 아님.

59) ④

7%	3%	5%	83%	2%

60) ②

☞ Zola Guide 이 정도면 생윤으로도 충분히 '답'은 나옴.

61) ⑤

☞ Zola Guide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 '불변'='실체'임. 불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즉 만물이 불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함. 불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이 생김.

62) ③, ④, ⑤, ⑥, ⑦

☞ Zola Guide 틀리면 반드시 강의나 필기 다시 확인해야 함.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덕 원리를 응용하는 것임!

63) 답은 아래. 틀리면 반드시 강의 확인 또는 질문할 것!

①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할 수 있다.(18-수능, 20-6, 윤사) O
② 행복의 원리는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18-수능, 20-6, 윤사) O
③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8-수능, 윤사) O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8-수능, 윤사) X
⑤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21-6, 윤사) O
⑥ 쾌락의 추구는 개인의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21-6, 윤사) O
⑦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20-9, 윤사) X
⑧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19-수능, 윤사) X
⑨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19-수능, 윤사) O
⑩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19-6, 윤사) O
⑪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23-수능, 윤사) O
⑫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2-수능, 윤사) X

64) ②

65) ㄱ, ㄷ

66) ⑤

☞ Zola Guide 정답률 48%임. 도대체 왜???

67) ①

68) ㄱ, ㄷ, ㄹ

69) ③

14%	7%	48%	12%	18%

☞ Zola Guide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서 놀랐음. 6평 (윤사) 문제인데 고3들은 9평 이후에 급 사탐 성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음. 대신 국수(영)에서 빵구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함!)

70) ㄴ, ㄷ (정답률 45%)

71) ㄴ, ㄷ, ㄹ, ㅁ

☞ Zola Guide 'ㅁ'은 21-수능 선지임. 공리주의자들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면 됨. 칸트는 인격성(존엄성)을 적용하면 됨. 인격성은 절대적 가치로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임.

72) ㄴ, ㄷ, ㄹ(정답률 35%)

73) ④

2%	2%	18%	74%	2%

☞ Zola Guide 조사한 기관마다 정답률 편차가 심한 문제이다. 어떤 곳에서는 정답률을 56%로 추정하였다. 어찌되었건 ③은 답이 아니다.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는 없다. 그리고 ④는 동어 반복이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곧 '법칙'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언급하였다. 윤사에서 함정, 킬러 선지들까지 분석해서 강의를 하였으므로 여러분은 Zola를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

74) ④

8%	5%	24%	47%	16%

☞ Zola Guide <보기> ㄷ 선택하신 분들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 다시 듣길 바람. 개념 강의(Zola 생윤 1)도 잘 보길 바람. ㄷ 관련 바나나식 풀이를 오르비 및 유투브에 올렸음. '23 9 13 윤사(zola 바나나 제거)' 검색해 보셈.

https://www.youtube.com/watch?v=LYFhCH2EVr8

75) ㄱ, ㄴ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윤사를 하지 않는 생윤 선택자는 풀기 힘들 수는 있음. 제시문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길 바람.

76) ㄱ, ㄷ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이 제시문은 키워드를 종합했을 때 자연법 윤리임을 도출할 수 있음. 제시문의 키워드 중에서 '우주'와 '이성'이 핵심임. 이래도 잘 모르겠으면 수업 필기 내용을 꼭 보셈. logos 근처에 필기되어 있을 거임.

77) ①

57%	15%	6%	5%	15%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인지 알면 쉽게 풀림. 제시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음. 자연법 윤리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자유임.

78) ①

☞ Zola Guide 독해 또는 생윤 개념으로 맞출 수 있음!!

79) ㄱ, ㄴ, ㄷ, ㅁ

80) ①

81) ㄷ

82) ③

2%	2%	80%	4%	11%

83) ①

84) ⑤

85) ②, ③

86) ㄱ, ㄴ, ㄹ

87) ③

88) ㄱ, ㄴ, ㄷ

89) ③

☞ Zola Guide 정답률 35%임. 맨날 배려 윤리가 정의 윤리 비판하는 것만 풀다가 거꾸로 된 문제(정의 윤리가 배려 윤리 비판하는 내용) 푸니까 털린 것임. '비판'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풀어야 함. 평소에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함. 단 니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상의 입장에서 비판해야 함. 바나나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비판을 해서 문제가 됨! 그럴 바엔 차라리 외우는 것이 나음.

90) ㄱ, ㄴ, ㄹ

91) ①

92) ②

1%	77%	3%	18%	1%

93) ⑤

3%	7%	4%	7%	79%

94) ㄱ, ㄴ, ㄹ

☞ Zola Guide 제시문의 '유대', <보기> ㄴ의 '연대'라는 단어에 조심할 것. 본(자료) 교재 1-4의 9. 요나스의 글 (2)와 (6)을 참고할 것.

95) ㄱ, ㄴ, ㄷ, ㄹ

96) 사실 판단(소전제)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이다.

97) 도덕 원리(대전제) : 여성의 선택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98) 도덕 판단(결론)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9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

100)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101)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02) 사실, 도덕(순서 상관없음)

103) 연역

104) X

105) X

106) X

107) X

108) X

109) X

110) X(비논리적-흑백 논리임. 미래엔 교과서 예시자료)

111) ㄱ, ㄴ, ㄹ(22 ebs 수특 참고했음)
112)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3) ④
☞ **Zola Guide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협'의'함) B: 여론**

114) ④
☞ **Zola Guide 한자는 순서대로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임.**

115) 자연(기)의 흐름으로 봄
116) 살아 있을 때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이 많음
117) 삶과 죽음이 차별없음, 순환의 과정
118) ③
☞ **Zola Guide 의도적 행위=업(業). 오답 선지 중에는 어느 한 쪽 입장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니 신경쓰지 말 것.**
[오답 설명]
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 유가 입장임. 불가와 도가는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음.
② 업(業)이 소멸하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불가의 입장임. 도가는 부정함.
④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가?
⇒ 바나나 선지임!! 불가, 도가 모두 긍정.
⑤ 삶은 기(氣)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로 보아야 하는가?
⇒ 조심! 해당사항 없음. 도가에 따르면 죽음은 기의 흩어짐(소멸X), 삶은 기의 모임(생성X)임.

119) ①, ⑥(22 ebs 수특/수완 참고했음)
120) (순서대로)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121) ③, ④, ⑤, ⑦(22 ebs 수특/수완+Zola가 만든 선지)
122) 나-생명을 잉태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태아, 음악 동호회 사람들-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 사람
☞ **Zola Guide 원래 이 제시문은 톰슨(Thomson, J. J.)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비유이다. 그에 따르면 태아는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여성은 태아를 도와야 할 아무런 도덕적 의무도 없다.**

123) 글A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성(후천적인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글B의 경우 남녀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성(선천적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124) 아래 표 참고

사랑의 유형	친밀감	정열	헌신
(1)좋아함	○	×	×
(2)도취적 사랑	×	○	×
(3)공허한 사랑	×	×	○
(4)낭만적 사랑	○	○	×
(5)얼빠진 사랑	×	○	○
(6)우애적 사랑	○	×	○
(7)성숙한 사랑	○	○	○

☞ **Zola Guide 그림 보는 법을 알면 그만임. 외울 필요 없음.**

125) ㄱ-책임, ㄴ-존경/존중, ㄷ-지식(이해)
☞ **Zola Guide 기출로 출제된 부분을 활용하여 지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임. 이런 것을 놓치면 10년에 1번 통수 맞게 됨. 위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 자료를 활용한 것임.**

126) ①, ②, ③, ⑥, ⑦, ⑧, ⑩, ⑬
☞ **Zola Guide ⑮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애'이다. 자기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나 이기심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127) ③, ⑤
☞ **Zola Guide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효의 특징을 묻는 문제임! 독해 문제임.**